

이리후 건강칼럼

< 6 >

마음 거짓 알는법

병이 나면 사람들은 병원을 찾게 된다. 요즈음 병원의 문턱이 높아 가기가 힘들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많고, 또 병원을 찾지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진찰은 2~3분 밖에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평을 많이 한다.

나도 의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꼭 죄스럽게 생각하는 데 그런 실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일도당도 않은 이유로 병원을 비난하는 투기 유형이 환자 수가 있다. 하나는 병이 없으면서 병원을 찾아 병이 있다고 진단을 받을 때까지 병원을 잠정하는 환자가 있다. 이들은

군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질병을 조작하여 치료받기를 즐겨했던 한 독일병사의 이름을 따서 붙인 병이다. 여러번 입원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도 여러번 하면서 즐긴다.

다른 형의 환자는 괴병환자다. 괴병은 병이 없으면서도 어떤 목적으로 병을 청탁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환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군대 입영을 면하기 위해 아프지도 않은 부분을 아프다고 과장하거나 과장하거나 과잉을 피하기 위해 그런 거짓 병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괴병은 병이 없는 데도 있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동정을 받거나 복수 노린 마음의 병

대개 병원에서 면밀한 진단을 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너무나 서운해 하는 희한한 환자들이다. 이런 환자는 자신에게 병이 없다고 진단해준 의사를 비난하거나 그 병원이 불친절하다고 비난 하면서 또 다른 병원을 찾는다. 병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너무나 기뻐한다. 혹시 했던 걱정이 풀렸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병이란 고통스러운 것이고 기능을 잃을지도 모르며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되는 불행한 완인이 될지도 모르는 데, 그런 병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또 서운해하는 환자가 있으니 그런 환자를 관하하우렌 증후

하하우렌 증후군과 같으나 괴병은 그 병으로 인해 뚜렷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관하하우렌 증후군은 그런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것이 다른 점이다. 무의식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동정을 받거나 어떤 적개심의 대상에게 복수를 하는 마음의 병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어쨌든 이런 환자는 실제의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부당한 요구를 의해서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이 굉장하다. 하나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거짓말을 해야한다. 병도 거짓으로 앓는 병이 있는데 이는 마음의 병이다.

(이대 신경정신과 교수)

매일 죽는 여자

⑤ (마지막 회)

신경이 날카로웠던 것으로 기억되는 어느 여름날, 수도꼭지를 틀려고 일어나다 비격한 허리는 목도 발가락도 쫘악 못하게 하여 그림처럼 얼어져서 지었다. 내 몸은 살아버린 나무상 처처럼 되어갔다.

허리, 좌골 신경통, 뒷머리 뻠뻠, 어깨결림, 현기증, 실사, 반비, 가슴 두근거림 손발의 경련과 쥐는 증상, 손톱에 생기는 깊은 갈곡, 얼굴에 앉는 검은 기미, 배를 볼 수 없이 쓰린 눈... 이후 열거할 수가 없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완벽하게 고친다는 이는 없었다.

정말 죽어야 했는데,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널 사랑한다. 우리 루에서 유를 만들어 내지 않느냐? 널 나를 떠나면 안된다. 그러면 죽어 버린다'고 했다. 그의 내에 대한 집념은 숙명적인 것 같았다. 언제까지 지어놓은 이득을 지금까지 부르는 그는 <욕망의 연막>에 나오는 '히스클리프'를 연상시킨다. 그래, 언젠가는 그의 그물에서 죽든지 내가 그를 죽일지도 몰라. 내 환상은 현실과 본질을 할 수가 없었다. 차

'부처님 감사합니다. 천수경의 공덕입니다.' 열자리에 탄 남편과 난 손을잡아 다치지 않았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또 살아있구나.

그 다음에 겨울 밤하늘 교실의 하급문고에서 발견한 <도>를 읽고 한마음선인을 찾았다. 인 3일 스님을 보고 들은 말씀 중 지금도 귀에 평행한 구절.

"모두가 내가 있어서 일어난 일, 너를 끌고온 주인공에 맡겨라. 복어라, 너를 죽여라."

스님 말씀은 내 몸 구석구석 한점의 영혼까지도 옮겨 해했다. 가슴속의 불덩이가 튀어나간 것처럼 시원하고 후련했다.

혼수 상태도 아니면서 남편에게 미안해요 소리를 연발 외쳤다. 그러면서 방새 목을 놓고 울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어떤 스님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고 선원일 달려 갔으나 그날은 스님이 계시지 않았다. 며칠 동안 울다가 병하니 달린 것 같았는데 가슴속에서 이유없는 즐거움이 솟아나는게 아닌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 형제간에 재산 싸움

을 모르는 내 고집과 독선, 내 속의 알밤은 찾지도 못하고 수없이 남을 물려대던 가시많은 방승이, 스님의 말씀은 괴화침을 타고 내 정신으로 흘러내린 비박이었다. 금방 활활나는 새처럼 자유로워진 것 같았다. 정말 난 주인공에 미쳤다. 신나고 즐겁고... 그 환희는 내비통을 타고 무지개를 넘는 것 같았다. 내 발심은 뜻 맞는 동료들에게 전해져서 한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옛날 도통한 다니던 책을 삼기한 남편은 사마니즘적인 종교는 맹신이라고 날카롭게 질러왔다.

"당신이 회장이냐? 장님이 장님을 끌고 다녀?"

남편의 비수에 난 발음이 걸려 들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 희심으로 천방지축하는 내 모습



"모두가 내가 있어서 일어난 일, 너를 죽여라"

라리 깊은 산사의 여승이 되어볼까. 그러나 그 지리가 나처럼 속세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괴신 처도 아니다. 더구나 남편적인 대상이 아님을 난 알 수 있었다. 증상을 구하고 해탈을 위한 수행의 길입을. 무엇보다도 미쳐보자. 운전 연습, 방송통신대 5년제 입학, 불교 경전공부, 경전 외우기... 몸과 마음을 꼼짝 못하게 얽어놓았다. 추석이 지난 뒤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가려고 시골길을 달리다 운전 미숙으로 길고 넓은 개천으로 끈뭇바질하였다.

물가운데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생전 처음 걸어본 손목의 단주었다.

도 없었고 작은 것을 마련해도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준 사부모님. 그 술한 죽음의 고비에서 지금을 있게 해 준 내 주인공. 물이거친 친정부모님.

나의 아상을 죽이기 위해 한 평생 대배은 남편, 시댁식구들, 학교의 아이들, 몸과 나무와 바람에게까지도 감사하고 미안했다.

한문 글자 한 획까지도 나의 마음공부를 도와 주었다. 법(法), 충(忠), 도(道), 안(安)... 지면 관계로 모두 알 수 없는게 안타깝다. 모든 고의 일인은 '나'다. 부정적이고, 음흉성 없고, 욕심 많고, 고고한 척 도도하고, 부러질 망정 힘

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머리카락 한올도 죽이지도 녹이지도 못하고 구르초처럼 스님의 말씀을 울길 뿐이었구나. 경건, 법문, 선이라는 필과 몸과 불을 가지고 한 술의 밥도 죽도 띠도 만들지 못하면서 밥이 있어도 밥안줄도 모르고 허기에 지친 나그네. 그러면서 몸과 바람같은 대자유인이 된 것 같은 착각. 소리없는 울음에 목이 매어 입술을 깨문다. 남편의 비수는 내 깊숙한 환부를 드러내주는 자비요, 추수 높은 전통으로 달려가는 불나방의 날개짓을 향한 선입을 이해야 알게 되었다. 병 땀머리

었던 내 몸은 어느새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 매사에 감사하면, 난 정말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다.

하늘빛과 바람의 소리와 내 모습, 일체를 바로 볼 수 있는 눈, 어떠한 할에도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기 위하여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 매일매일...

이 연 옥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If fearless of the lash and stick, unmoved.
All things enduring, calm and pure in heart.
She bear obedience to her husband's word.
From anger free-
Let her be called: a handmaid and a wife!
채찍과 회초리를 겁내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지도 않아
모든 것을 참아내고 심성이 고요하고 깨끗하여

영어로 배우는 경전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화를 내지도 않는 이,
그를 일리 증같은 아내라 한다.
Now she who's called: a mistress, slayer, thief,
Who's harsh, immoral, lacking in respect,
When cometh death-
Will wander in the miseries of h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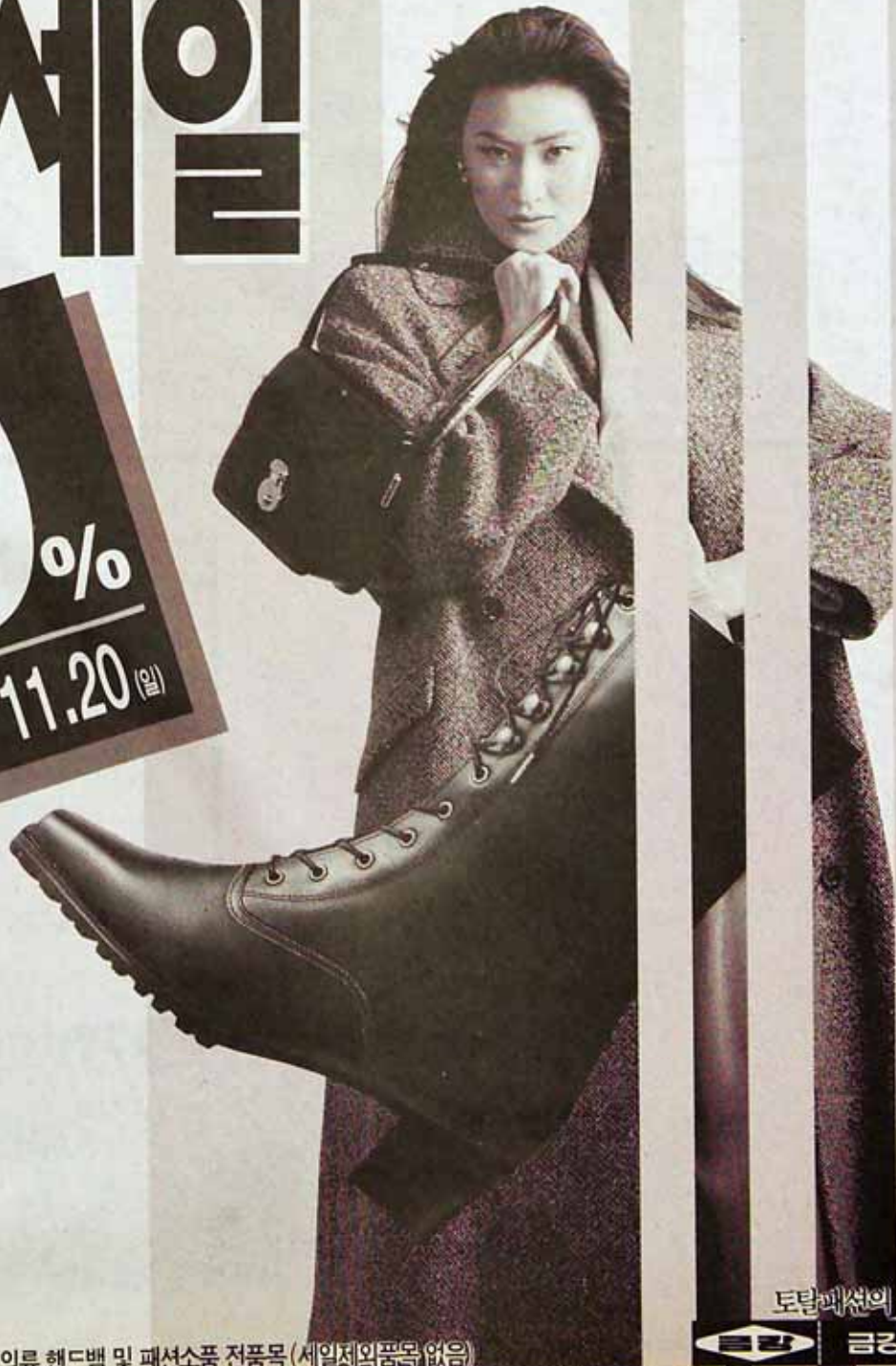
여주인, 살인자, 도둑이라 불리는 이들은 무자비하고, 음란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죽음이 오면 지옥의 비참 속을 방황하리라.
But mother, sister or companion,
Will wander in the miseries of slave.

In precept long established and restrained
When cometh death-
Will wander in the happy heaven world.
그러나 어머니, 누이, 친구, 증같은 이는 오랫동안 계율에 따라 참며 절제 하였기에

죽음이 오면 천상의 행복에 노닐 것이다.
These, Sujātā, are the seven kinds of wives a man may have; and which of them are you?
Lord, let the Exalted One think of me as a handmaid and a wife from this day forth.
이들이, 선언어아, 남자가 얻을 수 있는 일곱 종류의 아내이다. 그런데 그대는 어떤 아내인가?
부처님, 오늘부터 세존께서는 저를 종과 같은 아내라 생각하소서.

금강 정기세일

20% 기간: 11.11(금) ▶ 11.20(일)



금강 캐주얼화 동시 세일
■아웃도어 슈의 대표작버팔로
■아메리칸 정통 아웃도어 캐주얼...팀버랜드
■영국이 낳은 세계최상의 캐주얼화...클락스
Clarks

장소: 금강제화 전국지점 및 대리점 | 세일품목: 제화, 의류, 핸드백 및 패션소품 전품목 (세일제외품목 없음)

토탈패션의 名家
금강製靴 株